



한국인 대학생 영어 학습자의 영어 유의어 구별능력에 관한 연구*

김유경**
 부산대학교
 전지현
 부산대학교

ARTICLE INFO

Received: 14 December 2019
 Revised: 15 January 2020
 Accepted: 10 February 2020

Examples in: English
 Applicable Languages: English
 Applicable Levels: Tertiary

KEYWORDS

near synonyms/
 semantic differences/
 structural differences/
 L2/synonyms/
 근사유의어/
 의미적 차이/
 구조적 차이/
 제2언어/유의어

ABSTRACT

Kim, Yu-Kyoung, & Jeon, Jihyun. (2020). A study on Korean college English learners' proficiency of differentiating synonyms. *Modern English Education*, 21(1), 32-42.

This study explores Korean college English learners' ability to differentiate synonyms according to semantic and structural differences, assuming that the difference between Korean and English vocabulary may affect their ability to choose appropriate synonyms. This study uses a quantitative design as the main research methodology. One hundred five Korean college students participated and were classified into three groups according to their English proficiency which was determined by a TOEIC test. Thirty-two synonyms were selected for test items and three groups were asked to choose a proper synonym in a given context.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one-way ANOVA and a *t*-test.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 that participants of this study have a better ability to choose proper synonyms regarding semantic differences, implying that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do not have enough grammatical knowledge in noticing structural differenc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lso show that the high level English proficiency group recognized semantic and structural differences while both the intermediate level and the low level English proficiency groups could not differentiate synonyms according to semantic and structural differences. Directions for further studies and pedagogical implications are suggested.

I. 서론

영어 학습의 시작점이자 핵심적 역할을 하는 어휘학습은 의사소통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어휘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폭넓은 어휘 습득이 가능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또한 어휘에 대한 자연스런 노출과 이를 통한 오류수정이 불가능한 EFL(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환경의

한국 학습자들에게는 교육 과정에서 어휘 의미 간 언어적 맥락 차이를 인지시켜 영어와 한국어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반복적 오류를 줄일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특히 의미가 같거나 유사한 어휘들을 칭하는 유의어(synonym)의 경우 각 유의어간 의미적 차이에 대한 인식부족이 반복적 오류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의미적 차이를 명확히 파악하여 맥락과 문법에 맞는 적절한 어휘를 선택할

* 본 논문은 제1저자의 석사학위논문 자료의 일부를 바탕으로 함.

** 제1저자: 김유경, 교신저자: 전지현

김유경 (대학원생)
 부산대학교 영어영문학과 46241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 (장전동, 부산대학교)
 Tel: (051) 510-1510 / Email: flybaron@naver.com

전지현 (교수)
 부산대학교 영어영문학과 46241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 (장전동, 부산대학교)
 Tel: (051) 510-1510 / Email: jhjeon@pusan.ac.kr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학습하여야 한다.

Edmonds와 Graeme(2002)은 의사소통 상황에서 화자의 의도를 정확히 표현하기 위해 유의어 간 의미차이 구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의미차이의 종류를 의미 전달 방식과 관련된 외연적 변이(denotational variations), 방언 및 사용역과 연관된 문체적 변이(stylistic variations), 화자의 태도 및 감정으로 인한 표현적 변이(expressive variations), 연어(collocation) 혹은 문법과 관련된 구조적 변이(structural variations)로 구분하였다. 외연적, 문체적, 표현적 변이의 경우 의미적 차이가 유의어에 내포되어있어 어휘 학습과정에서 함께 습득하여야 하며, 구조적 변이의 경우 문법적 학습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올바른 구별이 가능하다. 이와 같이 의미적 차이가 포함된 유의어에서의 오류는 의사소통의 오류로 이어질 수 있으며, 학습자의 유창성과 정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의어를 크게 의미 차이 유의어¹와 구조 차이 유의어²로 구분하여 이에 따른 한국어인 대학생 영어학습자의 유의어 구별능력의 차이를 알아보하고자 한다.

다음 예시 (1)과 (2)를 통해 영어 유의어 사용 오류의 원인이 되는 영어와 한국어 유의어 차이를 살펴보자.

- (1) a. We were *telling/*saying/*speaking/talking about you.
- b. I can *tell/*say/speak/*talk English.
- c. She *told/said/*spoke/*talked that she loved John.
- d. She told/*said/*spoke/*talked me that she loved John.

(J.-S. Yang, 2014, p. 4)

영어에서 *say*, *tell*, *speak*, *talk*는 모두 ‘말하다’의 의미를 가진 유의어로 구분되지만, 각각 의미와 구조에서 차이를 가진다. 먼저 (1a)와 (1b)의 *talk*와 *say*의 경우, 의사소통에 초점을 둔 (1a)에서는 *talk*가 적절하며, 일반적 소리의 전달을 뜻하는 (1b)에는 *speak*가 적합하다. 반면 (1c)와 (1d)의 *say*와 *tell*은 구조적 차이를 가진 유의어로, 2항 술어인 *say*는 (1c)와 같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목적어나 목적절의 형태로 허용하고, 청자를 명시할 경우 'to+addressee'의 형태가 필요하다. 반면 *tell*은 3항 술어로 (1d)와 같이 청자가 인칭 간접 목적어의 형태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H.-J. Kil & K.-N. Lee, 2011). 이처럼 영어의 유의어는 주어진 문장의 구조 혹은 맥락에 따라 요구하는 의미를 정확히 구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 (2) a. 철수가 사랑에 대해 말했다/이야기했다.
- b. 한국 사람은 한국어로 말한다/*이야기한다.

- c. 철수가 영희에게 "바보"라고 말했다/*이야기했다.
- d. 철수는 친구와 오랫동안 *말했다/이야기했다.

(Y.-S. Jang, 2019, p. 48)

영어와 달리 한국어의 경우 *말하다*의 유의어는 *이야기하다*로 (2a)와 같이 교체되어 사용될 수 있지만, 의미적 차이 또한 존재한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이야기하다*는 ‘일정한 줄거리를 가지고 말을 하거나 주고받는 것’을 뜻하며, *말하다*는 ‘생각이나 느낌 따위를 말로 나타내는 것’으로 *이야기하다*에 비해 좀 더 포괄적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2b)와 (2c)와 같이 말 자체를 가리키거나 짧은 발화의 경우 *말하다*, (2d)와 같이 서로 말을 주고받는 경우에는 *이야기하다*가 적절하다. 이는 어근이 되는 *말*과 *이야기*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한국어 어휘는 실제 의미를 갖고 있는 어근에 의미를 더하거나 품사에 변화를 주는 접사나 어미가 붙어 단어가 형성되는 구조적 특징 때문에 직관적 구별이 가능하다(G.-S. Lee, 2003).

이와 같이 한국어는 어근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특징을 가져 유의어의 구분이 수월하지만, 영어는 어형과 어미의 변화가 내부적으로 표시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유의어의 구별이 어렵기에 학습과정에서 이러한 특징과 구별 방법에 대해 필히 지도하여야 한다. 하지만 한국 영어어휘학습 실태에 대해 조사한 J.-K. Lee(2011)의 연구를 살펴보면, 한국 영어교육 현장에서의 어휘학습의 비중은 충분치 않아 개별 낱말 수준에서 사전적 의미만을 암기하는 식의 일차원적 학습만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효과적인 유의어 구별을 위해선 영어와 한국어의 어휘 구조의 대조 분석을 통해 한국어가 미치는 영향과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인 대학생 영어학습자를 대상으로 영어 유의어 구별능력을 실험을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의미 차이 유의어와 구조 차이 유의어로 종류를 나누어, 유의어의 구별 방식과 학습자의 영어능력에 따라 구별능력에 차이가 있는지를 명확히 파악하여 설명할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 1) 한국어인 대학생 영어학습자들은 의미 차이 유의어와 구조 차이 유의어 구분 능력에 차이가 있는가?
- 2) 영어 능력에 따라 한국어인 대학생 영어학습자들은 의미 차이 유의어와 구조 차이 유의어 구분 능력에 차이가 있는가?

¹ 본 연구에서 의미 차이 유의어란 ‘의미적 구별이 가능한 유의어’를 가리키며, *wear*와 *put on*이 각각 ‘착용된 상태’, ‘착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의미적 구별이 필요한 것과 같이, 사용 환경은 같지만 의미적 차이를 가지는 유의어를 뜻한다.

² 본 연구에서 구조 차이 유의어란 ‘구조적 구별이 가능한 유의어’를 가리키며, *arrive*와 *reach*가 각각 자동사, 타동사라는 구조적 차이를 가지는 것과 같이 목적어의 유무, 서술용법과 한정용법, 동반되는 어휘 등과 같은 유의어의 사용 환경 즉, 주어진 문장 구조의 차이를 가지는 유의어를 뜻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순수 유의어와 근사 유의어

Ullmann(1957)은 유의어를 의미의 유사성을 가진 표현들이라 정의하고, 이를 의미 차이 없이 모든 문맥에서 두 어휘소가 상호 대치될 수 있는 순수 유의어(strict synonym)와 부분적 동의관계가 이루어져 문맥에 따라 상호대치가 가능한 근사 유의어(near synonym)로 구분하였다. Goddard(2011) 또한 유의성(synonymy), 반의성(taxonomic), 하의성(hyponymy), 부분성(partonymy; meronymy)과 같은 언어 의미관계에서 유의성이란 의미의 동일성을 뜻하지만, 완전히 똑같은 의미를 가지는 진정한 유의어는 언어 경제성의 원칙으로 인해 존재할 수 없고, 실제 언어에선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근사 유의어의 형태로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순수 유의어는 진리치, 의사소통 효과, 의미적 차이 없이 다른 맥락에서 서로 대체 가능하지만 실용적, 실증적 입장에서 존재가 불가능하거나 존재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Goodman, 1952; Quine, 1951).

유의어간 의미적 유사함과 차이에 대한 관심은 Edmonds와 Graeme(2002)에서도 이어지는데, 언어 속에 만연하여 쉽게 찾을 수 있는 근사 유의어는 특정 의사소통 상황에서 화자의 의도를 정확히 표현하기 위해선 유의어 간 의미차이를 명확히 밝혀 적절한 어휘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를 위해선 어휘의 사전적 의미에 함축, 내포, 화자의 태도가 더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예를 들어 *lie*, *falsehood*, *untruth*, *fib*, *misrepresentation*은 거짓말이라는 공통의 의미를 바탕으로 각각 조금씩 의미 차이를 가진다. 사실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을 속이려는 의도적 시도를 뜻하는 *lie*에 비해 *misrepresentation*은 더 간접적인 의미를 가지며 오해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untruth*의 경우 단순히 무지로 인한 거짓말, *fib*은 의도적이지만 상대적으로 사소한, 체면을 유지하기 위한 사소한 거짓말이라는 의미적 차이를 가진다. 또한 *fib*과 *falsehood*, *untruth*는 문체상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 *fib*은 일상적이고 어린 아이의 말투이지만, *falsehood*는 격식적인 용어이며, 마지막으로 *untruth*는 다른 용어에 비해 비판적 의도를 피하려는 완곡한 전달 방식을 내포하고 있다. Gove(1984)에 따르면, 근사 유의어의 의미 차이 구별은 원어민에게도 쉽지 않으며, 부적절한 구별로 인한 어휘 선택은 원치 않은 함축을 전달할 수도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근사 유의어의 의미 차이를 Edmonds와 Graeme(2002)은 외연적 변이(denotational variations), 문체적 변이(stylistic variations), 표현적 변이(expressive variations), 구조적 변이(structural variations)로 구분하였다. 먼저 외연적 변이란 가장 넓은 범위의 개념으로 역할, 상황과 관련된 개념에서의 차이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enemy*와 *foe*

의 경우 전자는 적대감을 강조하지만 후자의 경우 감정적 표현보다는 전쟁이라는 상황을 강조한다. 또한 의미 전달에 있어 의미를 직접적으로 제시하는지 혹은 간접적으로 주변 의미를 전달하는지도 외연적 변이에 포함되는데, *error*, *mistake*, *slip*의 의미차이가 이에 해당한다. *error*의 경우 단순히 잘못이라는 의미를 제시하며, *mistake*는 항상 저지르는 잘못이 아니라는 의미를, *slip*은 *mistake*에 비해 부주의에 대한 더 강한 함축을 내포한다. 이러한 외연적 변이는 의미 차이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특징을 가진다.

다음으로 문체적 변이란 방언(dialect)이나 사용역의 차이를 의미하는데, *pissed*, *drunk*, *inebriated*의 경우 *drunk*에 비해 *pissed*는 좀 더 일상적 문체, *inebriated*는 격식적인 문체이다. 세 번째, 표현적 변이란 화자의 태도와 감정적 차이를 가리키는데, 예를 들어 *skinny*, *thin*, *slim*, *slender*에서 화자가 비난, 경멸의 태도를 지닌다면 *skinny*, 반대로 칭찬의 태도를 가진다면 *slim* 혹은 *slender*, 중립적 태도를 가진다면 *thin*으로 표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구조적 변이란 단어 자체의 의미와는 별개인 여러 요소들의 배치와 관련된 제약을 포함하며, 언어적, 선택적, 통사적 구조에서의 차이를 가리킨다. 먼저 언어적 차이란 관용적 표현과 같이 함께 사용되는 어휘에 따라 사용상 구별을 두어야 하는 유의어로, *task*와 *job*의 경우 *face a daunting task*는 적절하지만, **face a daunting job*은 부적절한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또한 선택적 차이란 사전적 정의보다는 의미적 정의를 따르는 것으로, *pass away*의 경우 *die*와 의미는 비슷하지만 동, 식물에게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통사적 차이란 통사적 하위범주가 다른 유의어들, 즉 문장 구조의 형태가 달라지는 유의어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형용사 *ajar*는 한정적 용법으로는 사용할 수 없어 서술적, 한정적 용법이 모두 가능한 *open*과 통사적 하위범주를 달리한다.

이와 같이 완벽히 동일하진 않지만, 공유하고 있는 공통된 의미 자질로 인해 동일 문맥 내에서 서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비슷한 의미적 특징을 가진 유의어는 그 안에서 여러 차이를 가질 수 있으며, 의사소통 오류를 막기 위해선 이에 대한 일정하고 정확한 구분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유의어의 의미관계로 인해 어휘의 사전적 의미만을 단순히 암기해선 유의어 간의 미묘한 의미차이를 구별하기 어렵고 적절한 유의어 사용을 방해할 것이다. 따라서 영어 학습자들의 유창성과 정확성 향상을 위해선 유의어 의미 차이 및 구별 학습은 필수적 요소라고 볼 수 있다.

2. 영어와 한국어의 어휘 특징

언어는 전통적으로 어형변화의 양상에 따라 굴절어(inflexive language), 첨가어(affixing language) 및 교착어(agglutinative language), 고립어(isolating language)로 구분된다. 여기서 어형변화는 굴절(inflexion)이라고도 하며, 명

사의 단·복수, 주격·목적격 변화와 같은 격 변화를 지칭하는 곡용(declension)과 시제와 주어의 인칭에 따른 동사의 형태 변화를 가리키는 활용(conjugation)으로 구분할 수 있다(K.-A. Song, 2019). 먼저 굴절어는 곡용과 활용이 모두 이루어지는 언어로, 명사와 동사의 기본형이 있고 사용되는 환경에 따라 어미(ending)가 변화한다. 첨가어는 어미의 변화가 아닌 관련 어휘 뒤에 조사를 첨가하여 변화를 이루는 언어로, 형태상의 변화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굴절어와 공통점을 가지지만 그 형식에 있어서 차이를 보인다. 마지막으로 고립어란 어형변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 언어로 어순을 통해 문법성을 표시하며 대표적 예로 중국어를 들 수 있다.

영어와 한국어를 위와 같은 외적 유형에 근거한 유형론적 분류(typological classification)로 나누면 전통적 시각에서 영어는 인도유럽어의 하나로 프랑스어, 러시아어, 라틴어와 함께 굴절어에 속하며, 한국어는 터키어, 헝가리어, 만주어와 같이 알타이어계에 포함되어 첨가어에 속한다. 두 유형의 차이에 대해 Algeo와 Carmen(2005)은 굴절어란 접미사를 가진다는 면에서 첨가어와 비슷하지만, 결합에 있어 규칙성이 존재하지 않아 예측이 쉽지 않으며 하나의 접미사가 다양한 문법성을 가진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달리 교착어의 경우 단어형태가 변한다는 점에서 굴절어와 같으나, 접사(affix)와 어간(stem)이 규칙을 기반으로 결합하며 어간에서의 변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하지만 영어를 굴절어로 보는 전통적 시각은 최근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데, 게르만어에서 출발하여 이후 로맨스어인 프랑스어의 영향을 받은 과정에서 문법체계의 단순화 즉, 어형변화에서 명사의 격변화 체계와 동사변화 체계의 단순화가 발생하여 현대 영어는 굴절어의 성격을 거의 잃고 고립어에 가까운 언어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K.-A. Song, 2019). 그 예로 독일어나 프랑스어 등 유럽 언어의 경우 명사는 격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하지만, 영어의 경우 소유격과 대명사를 제외한 나머지 격변화 체계가 거의 사라졌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영어의 굴절어적 성격이 거의 사라졌다 하더라도, 영어와 한국어의 가장 큰 차이는 문장 내에서 단어의 문법적 기능을 결정하기 위하여 단어의 형태가 변하는 어형변화의 방식에 있다. 영어의 경우 사용되는 환경에 따라 단어 자체의 형태를 변화함으로써 문법성을 가지며, 한국어는 어간에 격조사가 교착(agglutinated)하여 그 어간의 문법적 의미가 결정된다(W.-S. Hyun, 2006). 이와 같이 영어는 하나의 형태소가 한 단어를 이루지만, 한국어는 실질 형태소와 문법 형태소의 결합으로 하나 이상의 형태소가 결합하여 단어를 구성한다. 이러한 차이는 표 1을 통해 알 수 있다.

TABLE 1
Differences Between English and Korean

English	Korean
I am a student.	나는 학생입니다.
My hair is long	나의 머리는 길다.
He gave a book to me.	그는 나에게 그 책을 주었다.
He likes me.	그는 나를 좋아한다.

표 1과 같이 영어의 어휘는 명사와 동사의 기본형이 있고 사용 환경에 따라 어근(root)의 형태가 변화하게 되며, 변화된 형태에서 어근을 파악하거나 변화 과정을 규칙으로 예측할 수 없어 학습을 통해 익힐 수밖에 없다. 반면 한국어의 어휘는 실제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어근에 의미를 더하거나 품사에 변화를 주는 접사나 어미가 붙어 형성된다(G.-S. Lee, 2003). 즉 명사나 동사의 뒤, 형용사의 어간 뒤에 다양한 조사와 어미를 취하여 형태 변화를 이루며, 여기서 조사와 어미는 주요한 문법적 기능을 표시하는 문법소의 역할을 한다. 또한 어형 변화에서 곡용과 활용이 모두 이루어지는 영어와 달리 한국어는 명사의 변화를 가리키는 곡용을 적용하기에 바람직하지 않으며, 명사의 사용에서 성의 구별과 수의 개념, 형용사의 비교급과 최상급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어휘의 유형론적 특징뿐만 아니라 K.-S. Sung(2015)은 영어와 한국어 어휘의 의미적 차이에도 관심을 기울였는데, 영어의 어휘는 품사별로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 집중하였다. 예를 들어 *spring*이 명사에서 봄, 샘, 용수철이라는 뜻을, 동사로는 *일어나다*와 같이 품사별로 다양한 의미를 지니므로 학습자들은 한 어휘가 문장 속에서 어떠한 품사와 의미로 쓰였는지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영어와 한국어의 어휘사용에서 서로 대응되지 않는 경우 겪게 되는 어려움을 지적하였다. 예를 들어 영어의 *come*은 화자와 청자에게 가까워지는 이동을, *go*는 화자와 청자로부터 멀어지는 이동을 표현한다. 이와 달리 한국어 *오다*는 화자에게 가까워지는 방향의 이동과 청자에 멀어지는 이동을, *가다*는 화자에게서 멀어지는 방향으로의 이동, 청자에 가까워지는 이동을 표현한다. 이로 인해 영어의 *go*는 한국어의 *가다*로만 대응되지만, 영어의 *come*은 한국어의 *오다*와 *가다* 모두에 대응되며, 한국어 *오다*는 *come*에 대응되지만, *가다*는 *go*와 *come* 모두 대응되어 학습자에게 많은 혼란을 초래한다고 한다. 이처럼 영어와 한국어의 어휘는 구조와 의미적 측면 모두에서 다양한 차이가 존재한다.

3. 선행연구

Elston-Güttler와 Williams(2008)는 모국어에 대응하는 영어 어휘가 2개인 경우 목표어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언어 사이의 차이가 유지되는지 혹은 오류를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는지 알아보고자 독일인 상위권 영어학습자 32명과 영어

가 모국어인 20명을 대상으로 명사와 동사를 중심으로 실험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모국어와 영어의 어휘화 패턴이 다른 경우 모국어가 영어 어휘 의미형성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또한 이는 명사보다 동사에서 더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강조하였다. Darus와 Subramaniam(2009)은 말레이시아인 고등학생 영어학습자 72명을 대상으로 모국어와 영어의 차이로 인해 학습자들이 겪고 있는 오류를 분석하기 위해 영어 작문을 통해 실험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단수/복수, 동사의 시제, 어휘 선택, 전치사, 주어-동사 일치, 어순 등 문법 구조와 어휘 선택의 영역에서 가장 빈번히 오류를 일으키는 것을 밝혀내었다. Behin과 Aso(2011)는 Elston-Güttler와 Williams(2008)의 연구목표를 바탕으로 40명의 이란인 영어학습자를 상, 하위 집단으로 나누어 명사에 초점을 둔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영어 어휘의미 형성 시, 모국어의 영향으로 인해 학습자로 하여금 적절한 어휘 선택의 시간을 지연시키거나 오답을 이끌어낸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오류의 주 원인 또한 모국어의 영향이라는 것을 밝혀내었다. 또한 학습자의 영어 실력이 향상함에 따라 어휘 사용에서 모국어를 거치지 않고 영어 어휘로 직접 연상하기에 모국어의 영향은 줄어들지만,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학습자의 실력과 관계없이 항상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국내에서도 한국인 영어학습자의 학습과정에서 영어와 한국어의 차이와 영향과 관련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먼저 K.-A. Cha(2004)는 한국인 영어학습자의 영어 작문에서의 오류 양상 파악과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대학생 15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어휘 및 표현의 어색함이 가장 많은 오류를 차지한다고 밝혀내었다. 특히 모국어와 목표 언어 간의 차이를 비롯하여 모국어에 없는 형태를 영어로 표현해야 하는 상황에서 가장 많은 오류가 발생한다고 강조하여 영어 학습에서 모국어의 영향을 증명하였다. J.-Y. Kim(2009)은 영어 동사 유의어 분석에서 한국인 영어학습자들이 겪는 오류의 실태를 알아보고자 중학교 3학년 87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동사는 통사적 차이 구분 문항과 의미적 차이 구분 문항, 동일한 의미와 구조를 갖는 문항으로 세분화되었으며, 그 결과 모든 유형에서의 정답률이 50%가 되지 않아 실험 참가자 모두 동사 유의어 구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통사적 차이와 의미적 차이에 대한 비중 또한 어휘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음을 보여주었다. H.-J. Kil과 K.-N. Lee(2011)는 영어 동사 유의어 *say*, *tell*에 대한 학습자의 이해 능력과 사용 능력을 진단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2학년 중, 상위권 학습자 111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학습자들은 모두 적절한 유의어 구별에서 어려움을 겪었으며, 특히 *tell*보다는 *say*에서 더 많은 오류를 보인다는 점을 밝혀내었다. 또한 유의어 학습에서 어휘의 통사적 특징과 함께 다양한 통사 구조와 유의어 간의 의미적 차이를 학습을 통해 지도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모국어의 영향으로 영어 학습에서 모국어 가 완전히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E.-A. Cho(2011)는 고등학교 1학년 상위권 영어 학습자 78명을 대상으로 학습할 어휘의 의미를 목표어로 지도했을 경우와 모국어로 지도했을 경우의 성취도 차이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모국어로 지도했을 때 학습자의 성취도가 더 높았는데, 이는 곧 영어 어휘를 습득할 때 학습자는 새로운 인지구조를 형성하기보다 이미 형성되어 있는 모국어의 개념에 영어 형태를 연결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 적절한 영어 어휘의미 파악에서 모국어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모국어는 영어 학습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기에 어휘 구조 차이의 대조를 통해 영어 학습에서 모국어가 미치는 영향과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이와 같이 기존의 영어와 한국어의 차이와 영향에 관련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어휘보다는 주로 시제, 어순, 전치사, 관사와 같은 문법체계의 오류현상에 집중되어있었고, 특히 대부분의 선행연구가 작문을 통한 오류분석으로 이루어져 외국어 학습자들이 오류를 피하기 위해 택하는 회피 전략(avoidance strategy)(Ellis, 1994; Schachter, 1974)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는 점에서 영어와 한국어의 어휘구조 차이로 인한 학습자들의 어휘 구별능력을 명확히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M.-W. Choi(2013), H.-J. Kil과 K.-N. Lee(2011), J.-Y. Kim(2009)과 같이 연구가 어휘에 초점이 맞춰졌다 하더라도 실험 대상이 영어 능력에 따라 집단별로 구분되지 않고 조사되었다는 점과 명사와 동사 또는 연어에만 국한되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겼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 대학생 영어학습자를 대상으로 영어 유의어 구별능력을 알아보기 위해 대상 어휘를 의미 차이 유의어와 구조 차이 유의어로 나누고, 이에 대한 구별능력과 함께 학습자의 영어능력에 따른 유의어 구별능력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I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참여자는 한 광역시에 소재하는 P대학에 재학 중인 한국인 영어학습자 112명(남자 51명, 여자 61명)이었으나 TOEIC 점수를 기재하지 않은 7명을 제외하여 총 105명(남자 49명, 여자 5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나이는 만 19세부터 27세로 평균 만 21.6세이다. 참여자는 모두 대한민국에서 정규 교육과정을 거쳤고, 영어를 처음 학습한 시기는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이 57명(54%), 초등학교 1학년 이전 26명(25%), 초등학교 4학년 이후 22명(21%)으로 조사되었다. 해외체류 경험이 1년 이상인 참여자는 17명(16%)이다.

2. 연구도구

한국인 대학생 영어 학습자들의 영어 유의어 구별능력을 알아보기 위해 평가지를 구성하였고, 의미 차이 영어 유의어 평가지와 구조 차이 영어 유의어 평가지가 개발되었다. 평가지는 동사 15개, 명사 5개, 형용사 4개, 부사 및 전치사 구 8개의 유의어로 구성되었다. 각 평가지는 2개의 다른 유의어가 사용된 영어 문장에서 주어진 한글 제시문과 더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문장을 고르는 형식으로 제시되었으며, 참가자의 추측을 배제하고 응답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둘 다 자연스럽다.’와 ‘잘 모르겠다.’를 선택지에 첨가하였다. 평가지 문항에 대한 가독성은 본 연구 참여자와 동일한 수준의 비 연구 참여자인 대학생 3명에 의해 검토되었고, 문항에 대한 난이도는 대학원생 8명과 전문가 1인에 의해 검수되었다.

먼저 의미 차이 유의어 평가지는 총 16 문항으로, 동사 7개, 명사 3개, 형용사 2개, 부사 및 전치사구 4개로 구성되었다. 평가지에 사용된 영어 유의어들은 모두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의미적 차이를 내포하고 있지만 한국어에선 표면적으로 의미 구분이 가능하거나 유의어가 아닌 단일어인 경우이다.

구조 차이 유의어 평가지의 경우 총 16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동사 8개, 명사 2개, 형용사 2개, 부사 및 전치사구 4개로 구성되었다. 사용된 영어 유의어들은 사용상 필요한 문장의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제시된 두 영어 문장 중 하나는 비문을 이루고 있다. 평가지에 사용된 전체 유의어 목록은 부록에 제시하였다.

3. 실험 절차 및 분석

본 연구는 다음의 절차에 의해 수행되었다. 먼저 M. W. Choi(2013), Edmonds와 Graeme(2002), J. S. Yang(2014)의 선행연구와 Swan(2012)의 “Practical English Usage”를 바탕으로 한국인 대학생 영어 학습자가 한국어와의 어휘 구조 차이로 인해 사용상 오류를 겪고 있는 유의어들을 수집하여 평가지를 구성하였다. 작성된 문항들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고, 절차상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평가지의 1, 2차 완성본은 영어교육 전공 대학원생 8명과 전문가 1명에 의해 총 2회에 걸쳐 공개적으로 검토되어 평가지 문항들의 난이도와 정확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실험집단과 동일한 수준의 피실험자 대학생 3명을 선발하여 평가지의 가독성을 검수하였다.

본 실험은 2019년 5월 마지막 주 교양 영어 및 전공 영어를 수강하는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고, 담당 교수와 강사의 허락 하에 총 40분간 진행되었다. 평가 시작 전 연구의 목적과 작성 방법, 참여 거부 의사의 표현이 가능함을 공지하였다. 참여자들은 평가지와 함께 설문 항목(성별, 나

이, 전공, 어학연수 유무, 공인 영어 점수, 영어 학습 관련 질문을 작성하였으며, TOEIC 점수를 기재하도록 요청받았다. 설문지와 평가지를 작성한 모든 참여자들에게는 소정의 사례품을 제공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자는 작성된 의미 차이 유의어 평가지와 구조 차이 유의어 평가지에서 각 항목에 대한 정답은 1점, 정답을 제외한 나머지 보기를 선택한 답변을 0점으로 점수화하였다. 각 평가지의 점수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23.0 통계프로그램을 통해 의미 차이 유의어 및 구조 차이 유의어에 따라 기술통계 및 t-검정이 시행되었다. 연구 참여자의 영어 능력은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 결과를 기준으로 TOEIC 점수 805점과 750점을 중심으로 구분하였을 때 각 집단 간의 차이가 가장 대조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805점 이상을 상위 집단, 750점 이상 800점 이하를 중위 집단, 750점미만을 하위 집단으로 구분하였으며, 그 결과 상위 집단 31명, 중위 집단 49명, 하위 집단 25명으로 집계되었다. 표 2의 일원배치 분산분석은 상·중·하 세 집단이 영어 능력에 있어 통계적으로 서로 다른 집단임을 보여준다.

TABLE 2
One-way ANOVA

	SS	df	MS	F	p
Between groups	697181.033	2	348590.517	288.283	.000
Within groups	123338.014	102	1209.196		
Total	8202519.048	105			

표 2의 일원배치 분산분석 결과 $F(2, 102) = 288.283$, 유의확률 $p = .000$ 으로 세 집단이 영어 능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p < .05$). 또한 표 3의 사후 다중비교(post-hoc)를 통해 집단 간 영어 능력의 구체적 차이를 살펴보았다.

TABLE 3
Multiple Comparisons

(I)	(J)	Mean difference (I-J)	Std. Error	p	95% confidence interval for mean	
					Lower bound	Upper bound
High	Intermediate	137.35	7.98	.000	121.52	153.18
	Low	217.52	9.34	.000	198.98	236.06
Intermediate	High	-137.35	7.98	.000	-153.18	-121.52
	Low	80.17	8.54	.000	63.22	97.12
Low	High	-217.52	9.34	.000	-236.06	-198.98
	Intermediate	-80.17	8.54	.000	-97.12	-63.22

표 3의 영어 능력 사후 다중비교의 유의확률은 모두 $p = .000$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나타냈으며, 따라서 세 집단의 영어능력은 서로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p < .05$).

IV. 연구결과 및 논의

먼저, 전체 연구 참여자의 영어 능력과 의미 차이 유의어(이하 의미), 구조 차이 유의어(이하 구조), 전체 유의어의 구별능력에 대한 기술 통계량은 표 4와 같다.

TABLE 4

Descriptive Statistics for English Proficiency, Semantic Differences, Structural Differences and Total Synonyms

	<i>n</i>	<i>Min</i>	<i>Max</i>	<i>M</i>	<i>SD</i>
English proficiency	105	600.0	980.0	785.23	88.82
Semantic differences	105	1	13	8.80	2.55
Structural differences	105	2	13	7.98	2.92
Total synonyms	105	4	26	16.78	4.76

표 4에서 전체 연구 참여자의 TOEIC 점수를 바탕으로 한 영어 능력의 최소값은 600점, 최대값은 980점이며 평균점수는 785.23점이었다. 의미 차이 유의어의 최소값은 16점 만점에 1점, 최대값 13점, 평균점수 8.80점이었다. 구조 차이 유의어의 최소값은 16점 만점에 2점, 최대값 13점, 평균점수 7.98점이었다. 마지막으로 전체 유의어에 대한 구별능력의 최소값은 32점 만점에 4점, 최대값 26점, 평균 16.78점이었다.

또한 상·중·하 집단의 영어 능력과 의미 차이 유의어, 구조 차이 유의어, 전체 유의어의 구별능력에 대한 기술 통계량은 표 5~7과 같다.

TABLE 5

Descriptive Statistics for English Proficiency, Semantic Differences, Structural Differences and Total Synonyms – High-level English Proficiency Group

	<i>n</i>	<i>Min</i>	<i>Max</i>	<i>M</i>	<i>SD</i>
English proficiency	31	805.0	980.0	901.12	49.50
Semantic differences	31	6	13	10.19	1.77
Structural differences	31	6	13	9.84	2.05
Total synonyms	31	14	26	20.03	3.08

표 5에서 상위 집단을 살펴보면, 유의어 구분에서 의미 차이 유의어의 최소값은 16점 만점에 6점, 최대값 13점, 평균 10.19점이었고, 구조 차이 유의어의 최소값은 16점 만점에 6점, 최대값 13점, 평균 9.84점이었다. 두 종류를 합친 전체 유의어의 최소값은 32점 만점에 14점, 최대값 26점, 평균 20.03점이었다.

TABLE 6

Descriptive Statistics for English Proficiency, Semantic Differences, Structural Differences and Total Synonyms – Intermediate-level English Proficiency Group

	<i>n</i>	<i>Min</i>	<i>Max</i>	<i>M</i>	<i>SD</i>
English proficiency	49	750.0	800.0	763.77	22.18
Semantic differences	49	1	13	8.49	2.47
Structural differences	49	2	13	7.55	2.76
Total synonyms	49	4	26	16.04	4.62

표 6의 중위 집단의 경우 의미 차이 유의어의 최소값은 16점 만점에 1점, 최대값 13점, 평균 8.49점이었고, 구조 차이 유의어의 최소값은 16점 만점에 2점, 최대값 13점, 평균

7.55점이었다. 전체 유의어의 최소값은 32점 만점에 4점, 최대값 26점, 평균 16.04점이었다.

TABLE 7

Descriptive Statistics for English Proficiency, Semantic Differences, Structural Differences and Total Synonyms – Low-level English Proficiency Group

	<i>n</i>	<i>Min</i>	<i>Max</i>	<i>M</i>	<i>SD</i>
English proficiency	25	600.0	740.0	683.60	33.02
Semantic differences	25	1	12	7.68	2.82
Structural differences	25	2	11	6.52	3.07
Total synonyms	25	5	22	14.20	4.70

표 7의 하위 집단의 경우 의미 차이 유의어의 최소값은 16점 만점에 1점, 최대값 12점, 평균 7.68점이었고, 구조 차이 유의어의 최소값은 16점 만점에 2점, 최대값 11점, 평균 6.52점이었다. 전체 유의어의 최소값은 32점 만점에 5점, 최대값 22점, 평균 14.20점이었다.

1. 의미 차이 유의어와 구조 차이 유의어의 구별능력

한국인 대학생 영어학습자들의 의미 차이 유의어와 구조 차이 유의어의 구별능력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연구 질문 1) 의미 차이 유의어 16개와 구조 차이 유의어 16개로 이루어진 설문지의 응답 결과를 대응 표본 *t*-검정을 통해 분석하였다. 표 8은 의미 및 구조 차이 유의어의 구별능력 기술 통계량과 대응표본 *t*-검정 결과를 보여준다.

TABLE 8

Descriptive Statistics and Paired *t*-Test

Differences	<i>n</i>	<i>M</i>	<i>SD</i>	<i>t</i>	<i>p</i>
Semantic	105	8.80	2.55	3.093	.003
Structural	105	7.98	2.92		

표 8에서 의미 차이 유의어와 구조 차이 유의어의 평균을 비교·분석해보면, 의미 차이 유의어의 경우 16점 만점에 평균점수는 8.80점이었으나, 구조 차이 유의어는 16점 만점에 7.98점으로 나타났다. 표준편차는 각각 2.55와 2.92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각 유형별 점수의 유의확률을 검정하고자 대응표본 *t*-검정을 수행한 결과 $t(104) = 3.093, p = .003$ 으로 나타나, 두 유형의 유의어 구별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p < .05$).

종합해보면, 두 유형의 평균 점수를 비교하였을 때 한국인 대학생 영어 학습자들은 의미 차이 유의어와 구조 차이 유의어의 구별능력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미 차이 유의어를 구조 차이 유의어보다 더 구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의 원인으로 영어와 한국어의 어휘구조 차이의 관점에서 유추해보면, 구조 차이 유의어의 경우 영어의 문법적 지식을 바탕으로 구별이 이루어져야 하기에, 용례와 의미적 차이로 유의어를 구별하는 한국어(N. I. Son, 2013)와 더 큰 차이가 존재한다. 때문에 한국인 대학생 영어 학습자들은 의미 차이 유의어에서 구조 차이

유의어보다 더 높은 구별능력을 보이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차이가 학습자의 영어 능력과도 상관관계가 있는지도 알아보기 위해 상·중·하 집단의 유의어 구별능력을 대응 표본 *t*-검정을 통해 재분석하였다. 표 9는 상·중·하 집단의 의미 및 구조 차이 유의어의 구별능력 기술 통계량과 대응표본 *t*-검정 결과를 보여준다.

TABLE 9
Descriptive Statistics and Paired *t*-Test
– Three English Proficiency Groups

Proficiency	Differences	<i>n</i>	<i>M</i>	<i>SD</i>	<i>t</i>	<i>p</i>
High	Semantic	31	10.19	1.77	.863	.395
	Structural	31	9.84	2.05		
Intermediate	Semantic	49	8.49	2.47	2.652	.011
	Structural	49	7.55	2.76		
Low	Semantic	25	7.68	2.82	1.631	.116
	Structural	25	6.52	3.07		

표 9와 같이 의미 차이 유의어의 평균점수와 표준편차는 16점 만점에 상위 집단 10.19점과 1.77점, 중위 집단 8.49점과 2.47점, 하위 집단 7.68점과 2.82점이었으며, 구조 차이 유의어의 평균점수와 표준편차는 16점 만점에 상위 집단 9.84점과 2.05점, 중위 집단 7.55점과 2.76점, 하위 집단 6.52점과 3.07점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각 집단 내 유의어 구별 능력에 차이가 있는지 살피기 위해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중위 집단에서만 $t(48) = 2.652, p = .011$ 으로 나타나, 중위 집단에서는 두 유형의 유의어 구별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p < .05$). 상위 집단과 하위 집단의 경우 각각 $t(30) = .863$ 과 $p = .395$, $t(24) = 1.631$ 과 $p = .116$ 으로 모두 유의확률이 .05보다 크게 나타나 중위 집단을 제외한 나머지 집단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지금까지 종합해보면, 한국인 대학생 영어학습자는 의미 차이 유의어에서 영어의 문법적 지식이 필요한 구조 차이 유의어보다 더 높은 구별능력을 보였으며, 두 유형 간 구별능력의 차이는 중위 집단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영어 능력이 상위 수준일 경우 영어능력이 일정수준을 넘어서 영어의 의미 및 구조적 차이를 인지하면서 한국어 어휘구조의 간섭을 극복한 것으로, 하위 수준의 학습자의 경우 의미 및 구조적 차이를 인지하는 영어 능력수준에 미달하여 그 차이가 드러나지 않으나, 중위 집단의 경우 일정수준의 영어능력에 도달하지 못하여 한국어의 간섭이 일어나 구별능력이 더 낮은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2. 영어능력에 따른 의미 차이 유의어와 구조 차이 유의어의 구별능력

한국인 대학생 영어학습자들은 의미 차이 유의어와 구조 차이 유의어에서 학습자의 영어능력에 따라 구별능력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연구 질문 2) 설문지의 결과를 상·

중·하 집단으로 나누어 일원배치 분산분석과 사후다중비교를 실시하였다. 먼저 표 10은 영어 능력에 따른 구별능력 일원배치 분산분석 결과이다.

TABLE 10
One-way ANOVA – Three English Proficiency Groups

		<i>SS</i>	<i>df</i>	<i>MS</i>	<i>F</i>	<i>p</i>
Semantic	Between groups	96.276	2	48.138	8.458	.000
	Within groups	580.524	102	5.691		
	Total	676.800	104			
Structural	Between groups	169.406	2	84.703	12.024	.000
	Within groups	718.556	102			
	Total	887.962	104	260.538		
Semantic + Structural	Between groups	521.076	2	18.068	14.420	.000
	Within groups	1842.886	102			
	Total	2363.962	104			

표 10의 일원배치 분산분석 결과 먼저 의미 차이 유의어의 경우 $F(2, 102) = 8.458, p = .000$ 이었으며, 구조 차이 유의어의 $F(2, 102) = 12.024, p = .000$, 두 유형을 합친 전체 유의어의 결과는 $F(2, 102) = 14.420, p = .000$ 으로 상·중·하 집단 간 구별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p < .05$). 표 11을 통해 각 집단 간 구체적 차이를 살펴보겠다.

TABLE 11
Multiple Comparisons

	(I)	(J)	Mean difference (I-J)	Std. error	<i>p</i>	95% Confidence interval for mean	
						Lower bound	Upper bound
Semantic	High	Intermediate	1.704*	.547	.002	.62	2.79
		Low	2.514*	.641	.000	1.24	3.79
	Intermediate	High	-1.704*	.547	.002	-2.79	-.62
		Low	.810	.586	.170	-.35	1.97
	Low	High	-2.514*	.641	.000	-3.79	-1.24
		Intermediate	-.810	.586	.170	-1.97	.35
Structural	High	Intermediate	2.288*	.609	.000	1.08	3.50
		Low	3.319*	.713	.000	1.90	4.73
	Intermediate	High	-2.288*	.609	.000	-3.50	-1.08
		Low	1.031	.652	.117	-.26	2.32
	Low	High	-3.319*	.713	.000	-4.73	-1.90
		Intermediate	-1.031	.652	.117	-2.32	.26
Semantic + Structural	High	Intermediate	3.991*	.975	.000	2.06	5.93
		Low	5.832*	1.143	.000	3.57	8.10
	Intermediate	High	-3.991*	.975	.000	-5.93	-2.06
		Low	1.841	1.045	.081	-.23	3.91
	Low	High	-5.832*	1.143	.000	-8.10	-3.57
		Intermediate	-1.841	1.045	.081	-3.91	.23

* $p < .05$

표 11을 보면, 우선 의미 차이 유의어의 경우 상위 집단과 중·하위 집단 사이에는 유의확률이 .05 보다 낮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반면 중위 집단과 하위 집단 사이의 유의확률은 .05 보다 크므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구조 차이 유의어와 두 유형이 합쳐진 전체 유의어에서의 구별능력 또한 상위 집단과 중·하위 집단 사이의 유의확률은 .05 보다 낮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였지만, 중위 집단과 하위 집단 사이는 .05 보다 크므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한국인 대학생 영어학습자들의 영어 능력이 상위 집단과 중·하위 집단 간의 유의어 구별 능력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 상위 집단의 학습자의 경우 문지방 가설(threshold hypothesis)³에 따라 영어 능력이 일정수준을 넘어서 한국어와 영어의 유의어 구별에서 의미 및 구조적 차이를 인지하여 오류를 극복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중위 집단과 하위 집단의 사이에선 이러한 차이를 인지할 수 있는 영어 능력에 미달하여 오류의 차이가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V. 결론

영어와 한국어의 어휘구조에서 가장 큰 차이는 단어의 형태가 변하는 어형변화의 방식에 있다. 영어의 경우 사용 환경에 따라 단어 자체의 형태가 변화하여 문법성을 가지며, 어형과 어미의 변화가 내부적으로 표시되기에 직관적 구별이 어려운 반면, 한국어는 어근이 표면적으로 드러나 유의어간 의미차이 구별이 영어보다 수월하다. 이러한 차이를 바탕으로 한국인 대학생 영어학습자들의 영어 유의어 구별능력을 알아보고자 실시한 본 연구의 도출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인 대학생 영어 학습자들의 의미 차이 유의어와 구조 차이 유의어의 구별능력은 차이가 존재하였으며, 의미 차이 유의어를 구조 차이 유의어보다 더 잘 구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원인을 영어와 한국어의 어휘 구조 차이의 관점에서 유추해보면, 구조 차이 유의어의 경우 영어의 문법적 지식을 바탕으로 구별이 이루어져야 하기에 용례와 의미적 차이로 유의어를 구별하는 한국어(N.-I. Son, 2013)와 더 큰 차이가 존재한다. 때문에 한국인 대학생 영어 학습자들은 의미 차이 유의어의 구별능력이 구조 차이 유의어의 구별능력보다 더 높은 것으로 유추할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차이는 영어능력 중위 집단에서 가장 두드러진 차이를 보였는데, 상위 집단의 경우 영어능력이 일정수준을 넘어서 영어의 의미 및 구조적 차이를 인지하면서 한국어

어휘구조의 간섭을 극복하였고, 하위 집단의 경우 의미 및 구조적 차이를 인지하는 영어 능력수준에 미달하여 그 차이가 드러나지 않으나, 중위 집단의 경우 일정수준의 영어능력에 도달하지 못하여 한국어의 간섭이 일어나 구별능력이 더 낮은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둘째, 영어 능력에 따른 구별능력의 차이는 상위 집단과 중·하위 집단 사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는 문지방 가설을 바탕으로 상위 집단 학습자의 경우 영어 능력이 일정수준을 넘어서 한국어와 영어의 유의어 구별에서 의미 및 구조적 차이를 인지하여 오류를 극복하였지만, 중·하위 집단에서는 이러한 차이를 인지할 수 있는 영어 능력에 미달하여 오류의 차이가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Y. Lee(2017)는 영어 단어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주 요소는 교사의 지도방법과 읽기 텍스트라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정확한 영어 유의어 구별을 위해선 영어 학습현장에서의 교사의 역할과 적절한 교재의 선정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의 결과분석을 바탕으로, 영어 학습현장에서 교사는 영어 어휘의 의미만을 단순히 암기하는 방식이 아닌 한국어와의 의미 및 구조적 차이를 함께 학습자에게 인식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특히 중·하위권 영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영어 유의어 간 구조적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적절한 문법 수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영어와 한국어의 어휘구조 차이와 유의어의 의미차이 종류를 다룬 동시에 유의어의 구별 유형과 영어능력에 따른 구별능력의 차이를 모두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한국인 대학생 영어학습자의 유의어 구별능력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 다만 본 연구에 사용된 유의어 중 명사와 형용사의 개수가 5개, 4개로 해당 품사에서 더 많은 유의어를 다루지 못하였다는 점, 주관식 답변이나 실험자 인터뷰를 통한 구별능력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종합적인 유의어 구별능력으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one-way ANOVA를 분석도구로 사용하여 유의어 종류와 영어능력 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제약을 가진다. 따라서 추후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제한점을 보완하여 연구결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설문 방법과 함께 좀 더 많은 유의어를 다루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해당 결과의 원인 중 하나로 모국어 간섭 여부를 밝혀줄 한국어 능력 평가를 통한 결과 검증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mixed design ANOVA를 분석도구로 사용하여 유의어의 종류를 개체 내 변수로, 영어 능력에 따른 집단을 개체 간 요인으로 설정하여 각 요인 간의 상호작용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³ 문지방가설(threshold hypothesis)이란 외국어 독해에서 모국어 독해 능력이 사용되기 위해선 일정 수준 이상의 외국어 능력이 요구되며,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모국어 독해 능력이 단락(short-circuit) 되어 사용할 수 없다는 이론이다(G. P. Park & J. S. Chae, 2000).

REFERENCES

- Algeo, J., & Carmen, B. (2005). *Problems in the origins and development of the English language*. New York: Thomson Wadsworth.
- Behin, B., & Aso, B. (2011). First language activation during second language lexical processing in a sentential context. *The Journal of Applied Linguistics*, 4(1), 1-28.
- Cha, Kyung-Ae. (2004). An error analysis of Korean university students' writing. *Foreign Languages Education*, 11(2), 149-169.
- Cho, Eun-Ae. (2011). *The role of the first language and contexts in the form-meaning mapping connections of second language vocabulary: A case of high school students in Korea*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Seoul.
- Choi, Myung-Won. (2013). Interferenzeffekte des zweitspracherwerbs im Englischen und im Deutschen von Koreanischen erwachsenen erstsprachlern [The interference effect of learning second language in English and German for Korean adult learners]. *Gesellschaft fuer Deutsche Sprache und Literatur*, 1, 1-24.
- Darus, S., & Subramaniam, K. (2009). Error analysis of the written English essays of secondary school students in Malaysia: A case study. *European Journal of Social Sciences*, 8(3), 483-495.
- Edmond, P., & Graeme, H. (2002). Near-synonymy and lexical choice. *Computational Linguistics*, 28(2), 105-144.
- Ellis, R. (1994). *The study of second language acquisi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Elston-Güttler, K., & Williams, J. (2008). First language polysemy affects second language meaning interpretation: Evidence for activation of first language concepts during second language reading. *Second Language Research*, 24(2), 167-187.
- Goddard, C. (2011). *Semantic analysis: A practical introduc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Goodman, N. (1952). On likeness of meaning. In L. Linsky (Ed.), *Semantics and the philosophy of language*, (pp. 67-74). Urbana, IL: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 Gove, P. (Ed.). (1984). *Webster's new dictionary of synonyms*. Springfield, MA: Merriam-Webster.
- Hyun, Wan-Song. (2006). Significance of the comparison between L1 and L2. *The Journal of Linguistic Studies*, 11(1), 59-78.
- Jang, Yun-Seo. (2019). *A research on an alternative way of teaching verb synonyms to the novice learners in Korean* (Unpublished master's thesis). Pusan National University, Busan.
- Kil, Ho-Jin, & Lee, Kyoung-Nam. (2011). A study on the synonyms say and tell: Based on high school English textbooks, SAT reading section, and student tests. *The Jungang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53(4), 23-49.
- Kim, Ji-Young. (2009). *An analysis on 'synonymous verbs' – On the basis of the 9th grade English*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 Hee University, Seoul.
- Lee, Gwan-Sik. (2003). Eohwigujo ihareul tonghan hangukeo eohwi gyoyuk: Pasaengeo bunseokgwa inchingjeopmisau iowon ihaereul tonghan eohwi seupdeukeul jungsimuro [Korean vocabulary teaching by understanding vocabulary structure: Focusing on vocabulary acquisition through the analysis of derivative and understanding of personal suffixes' root]. *The Journal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and Research*, 1, 277-302.
- Lee, Jae-Keun. (2011). The development of English vocabulary teaching model based on semantic field. *Journal of the Korea English Education Society*, 10(1), 169-192.
- Lee, Yoon. (2017). Word recognition strategie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the effects of textbooks on their strategy use. *Modern English Education*, 18(1), 145-164.
- Park, Gi-Pyo, & Chae, Jung-Sook. (2000). Testing the threshold hypothesis in foreign languages reading. *Foreign Language Education*, 7(2), 259-276.
- Quine, W. (1951). Two dogmas of empiricism. *Philosophical Review*, 60, 20-43.
- Schachter, J. (1974). An error in error analysis. *Language Learning*, 24(2), 205-214.
- Son, Nam-Ik. (2013). A study on Korean synonymy: Focus on gubun, gubeol, bunryu, bunbeol. *The Journal of Society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48, 287-310.
- Song, Kyung-An. (2019). *Eoneoui yuhyeonggwa hangukeo geurigo yeongeo* [The type of language, Korean and English]. Seoul: Youkrack.
- Sung, Kyung-Sook. (2015). *The comparison of native language interference between young and old learner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Incheon National University, Incheon.
- Swan, M. (2012). *Practical English usage* (1st ed.). Oxford: Oxford University.
- Ullmann, S. (1957). *The principles of semantics*. Oxford: Basil Blackwell.
- Yang, Ji-Sun. (2014). *A study on the usage and meaning differences between the English verbs say, tell, speak, and talk*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APPENDIX

Synonyms Used in Semantic and Structural Difference Test

Type	Korean	English	Type	Korean	English
Semantic difference	부상당하다	be injured be wound	Structural difference	끝나다	end finish
	거절하다	refuse deny		바라다	hope wish
	~이 되다	go get		허가하다	permit allow
	말하다	talk speak		믿다	trust believe
	가지고 가다	take bring		제공하다	provide offer
	기대하다	expect look forward		도착하다	arrive reach
	매다/입다	wear put on		제안하다	suggest propose
	고객	client customer		말하다	say tell
	가게	store shop		문제	trouble problem
	화장실	bathroom restroom		여행	travel journey
	재미있는	funny fun		퍼센트	percent percentage
	역사적인	historical historic		겁먹은	afraid frightened
	~에 타다	get on get in		근처에	near nearby
	아마도	maybe probably		거의	almost nearly
	혼자/스스로	by oneself alone		~사이에	between among
	~까지	until by		~동안	while during